

‘108산사순례기도회’ 3돌 재발심

24일 공옥진 여사에게 108 선행보시금 1000만원 전달

신행 전법문화에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 가고 있는 ‘108 산사 순례 기도회’가 3주년을 맞이했다. 서울 도선사(주지 혜자)는 11월 20~21일 108산사 순례 3주년 기념 법회, 천도재, <신행전법순례기>봉정식 등을 봉행했다.



(왼쪽)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이 108산사 순례 3주년 천도법회를 진행하고 있다. (위쪽)공옥진 여사에게 108선행보시금을 전달하고 있는 혜자 스님.

21일 도선사 경내를 가득 메운 신도들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3시간여 동안 야외에서 법회를 진행하며 순례를 통해 쌓은 내공을 자랑했다.

혜자 스님은 “108산사순례기도회는 큰 포대에 만물을 담아 보시했던 포대화상의 보살행을 상징하고 있다. 지난 3년 간 펼쳐온 선행은 7색 광명의 상서로운 빛이 14번 이상 발현하는 기적을 보이기도 했다”며 “보현행 10대 행원을 현대적으로 옮겨 실천함으로써 살아있는 불교, 방생을 실천해 ‘바른 마음, 자비로운 실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기념법회에 이어 혜자 스님은 참

가들을 위한 천도재와 3주년 기념으로 발간된 <신행전법순례기>(연중)에 축원을 적어 전달했다. <신행전법순례기>에는 산사순례기도회의 발대식부터 36곳 사찰에서의 활약상과 다양한 일화, 사찰 소개 등이 혜자 스님의 솔직한 신행담 형식으로 담겼다. 스님은 책을 통해 “36곳의 사찰순례를 마치고 나니 가슴이 벅차오른다. 지금까지 실천한 108선행을 꾸준히 전개할 것”이라며 “보살님의 가호와 정답 스님의 불교는 산중에서 거리로, 도시에서 농촌으로, 한국에서 세계로”라는 가르침, 문도스님들의 충고, 나를 믿고

따라온 도선사 불자들이 108산사순례기도회 회원들의 감사함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적었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전영식 씨(원주·49)는 “내 마음을 찾아가는 길이라 더욱 뜻 깊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태풍이 오나 늘 함께 해주시는 혜자 스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농촌사랑방사단으로 활동 중인 문명옥(구리·55)씨는 “순례동참을 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졌다. 사찰순례를 갈 때 종종 나타나는 무지개 외에 새로운 수행을 통한 만남과 풍경 등을 통해 좋은 체험을 많이 한다”

고 소감했다.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과 함께 떠나는 ‘108산사 순례 기도회’는 월회 사찰 순례를 떠나 엽불과 기도, 신도 장구대다라니 독송 및 사경, 발원문, 동참불자에게 낙관과 해당 사찰 이름이 새겨진 엽주암 보시를 통해 참가자들의 신심을 북돋고 있다. 또 2006년부터 36곳의 사찰 순례는 단순한 개인 수행을 넘어 지역 특산물 직거래 장터로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 진행, 군포교, 다문화가정 자매결연 사업, 환경보호운동 등의 혁신적인 신행활동을 펼치며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11월 24일에는 뇌졸중으로 쓰러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고 있는 창무국의 대가 공옥진 여사에게 ‘108 선행 보시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선행금은 108산사 순례에서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보시한 기금으로 그동안 원로코미디언 배삼룡, 불우한 청소년을 위한 수술비 등에 지원하며 진지한 감동을 주고 있다.

이상연 기자 un82@buddhapia.com

불교청년의 사회적 역할 ‘나눔과 참여’

대한불교청년회, 박원순 변호사 초청 만해포럼 개최

“물질만능과 극심한 사회 양극화 속에 ‘불교’가 희망입니다.”

‘소셜디자이너(social designer)’ 박원순이 말하는 사회가 요구하는 청년 불자는 어떤 모습일까?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정용정, 이하 대불청)는 11월 22일 서울 견지동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에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인 박원순 변호사를 초청해 ‘불교 청년의 사회적 역할, 나눔과 참여’를 주제로 제1차 만해포럼 개최했다.

박원순 변호사는 ‘발우공양’ ‘수경·도법 스님의 사회운동’ 등 불교계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콘텐츠의 활용방안을 쏟아냈다.

“단순 명쾌하고 가장 친환경적인 ‘빈 그릇 운동’, 무명을 깨우는 ‘죽비’ 하나도 외국인에게는기가 막힌 문화상품입니다. 사찰 요리 뷔페를 호텔에서 운영, 약초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박물관·연구소 설립, 화엄사의 화엄제와 같은 문화공연의 활용, ‘해초의 여행길’을 살리는 고행의 길, 숲길 살리기, 행복설계아카데미와 같은 노후 설계 프로그램 등 무한한 소재가 불교에 있습니다. 또 불교의 수행은 종교를 넘어 자기 수련, 운동으로 접근만 해도 뛰어난 아이템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박원순 변호사는 “세상의 변화

를 제대로 모르는 것이 쇠국”이라며 “조계종 총무원 차원이 아니고서도 대불청의 우수한 인재들만으로도 충분히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경제를 경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문화, 예술, 디자인, 생태적 감각, 창의적 혁신으로 세상을 바꿔야 한다. 핵심적 발상의 전환이 관건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뛰어난 콘텐츠가 있다고 해도 디자인이 떨어지면 성공할 수 없다”며 불교계의 역사적, 문화적 자원을 기능성과 디자인, 스토리텔링 등을 통한 혁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 밖에도 투명성을 통한 ‘신뢰’ 확보, ‘아이디어’와 ‘기부 문화’ 확산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참여를 제안하고 ‘공익적 목적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청년 불자’를 미래의 시대상으로 제시했다.

이상연 기자

잘 사는 부산, 하나 되는 시민

제1회 부산불교지도자 조찬 법회 봉행

부산을 대표하는 출·재가 지도자가 최초로 한자리에 모여 조찬법회를 열고, 부산 불교계 및 부산시정을 설계했다.

부산시불교연합회(회장 정여)는 11월 25일 오전 7시 코모도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잘 사는 부산, 하나 되는 시민’을 주제로 제1회 부산 불교 지도자 조찬 법회를 봉행했다.

조찬 법회는 <반야심경>, 서원문 낭독, <보왕삼매론>, 조찬법회 취지 설명, 법문, 석가모니불 정경, 축원 등의 의식을 봉행한 후 아침공양을 하고 각자의 일터로 향했다.

설동근 회장은 서원문에서 ‘대립과 장애, 갈등의 벽을 무너뜨리고 걸림 없는 지혜와 광명으로 ‘잘 사는 부산, 하나 되는 시민’의 서원이 부처님의 법력으로 이뤄질 것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허남식 부산시장은 “우리 사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불교 지도자들의 기도와 성원으로 감사하다”며 “조찬 법회를 계기로 부산의

희망찬 미래를 열고, 세계 일류 도시 부산을 만들 수 있도록 성원해주길 바란다”고 축사했다.

정여 스님은 “현대인들은 물질은 풍요로워졌지만 과도한 경쟁과 물욕으로 정신적으로는 많이 힘든 삶을 살고 있다”며 “불자로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는 보살행을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조찬법회에는 정여 스님, 화산 스님 부산시불교연합회 수석부회장(삼광사 주지), 정각 스님 부산시불교연합회 상임부회장(미동사 회주), 심산 스님 전법도량위원장, 허남식 부산시장, 제종모 부산시의회 의장, 설동근 부산시교육감 등 600여 인사가 참석했다.

부산시불교연합회는 앞으로 조찬법회를 정례화해 3개월마다 꾸준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51) 867-0501

박지원 기자

승가원자비복지타운 참가

두동페스티벌 대상

승가원자비복지타운(원장 묘전)이 11월 14일 수원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최영)에서 열린 ‘제1회 두동페스티벌’에 참가해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에는 각 지역사회의 지적·발달 장애어린이·청소년·성인으로 구성된 6개 팀이 참여해 그동안 뛰어난 난타실력을 겨뤘다.

6개 팀이 각자 개성 있는 퍼포먼스를 펼치며 경쟁을 치른 가운데 승가원 난타공연팀은 우리나라 고유 의 기락을 살린 민명나는 연주와 화려한 구성을 선보여 관객들의 많은 갈채를 받았다. 이날 공연에 참가한 승가원 난타공연팀 정인교(22·지적장애 2급)군은 “지금 어떤 것이라도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다. 너무 행복하다”며 수상 소감을 말했다.

묘전 스님은 “장애인도 한 분야에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날이다. 승가원자비복지타운 난타공연팀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031)641-1300 이상연 기자

자비와 사랑의 김장담그기

명장사 등 이웃위한 나눔 행사 다양

천태종(총무원장 정산) 지역 사찰과 산하 복지시설이 겨울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과 자비를 나누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 훈훈한 감동을 자아냈다.

청주 명장사(주지 용암)는 11월 24일 경내에서 자비와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산 스님을 비롯, 총무부장 무원 스님, 충북도청 백경배 행정부지사, 청주시 남상우 시장 등 1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해 3000포기의 김장을 담갔다.

용암 스님은 “어려운 이웃들이 사랑과 자비가 담긴 명장사 김치를 드시고 추운 겨울을 건

강하게 잘 이겨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담근 김장 김치는 청주 지역 내 독거어르신 및 소년소녀 가장, 장애우 가정, 새터민 가정 등 300가구에 전달 될 예정이다.

이밖에 부천 천화사(주지 월산), 인천 황룡사(주지 덕해), 분당 대광사(주지 월도), 포항 황해사(주지 진덕), 마산 삼학사(주지 갈지), 단양노인장애인복지관, 강원도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에서도 김장나누기 행사를 진행해 이웃들에게 희망과 자비를 전달했다.

이어나 기자

복지네트워크 중심거점역할 기대

연꽃마을, 용인시노인복지관 위탁 운영체 선정

연꽃마을(대표이사 각현)이 용인시노인복지관의 위탁 운영체로 선정돼 용인시 노인복지네트워크의 중심거점 역할을 하게 됐다.

용인시는 11월 23일 용인시노인복지관(최인구 삼가동) 위탁업체 선정 심사위원회를 열고 연꽃마을을 위탁 법인으로 선정했다.

연꽃마을은 지난 7월 방배노인종합복지관을 위탁받던데 이어 용인시노인복지관을 운영하게 됨으로써 7개소의 노인복지관을 운영, 하루 평균 약 7800여 명의 지역 어르신들이 연꽃마을 7개 복지관을 이용하게 됐다. 연꽃마을은 곧 복지관 인수 대책본부팀을 구성해 2005년 7월부터 위탁 운영해오던 대한간호복지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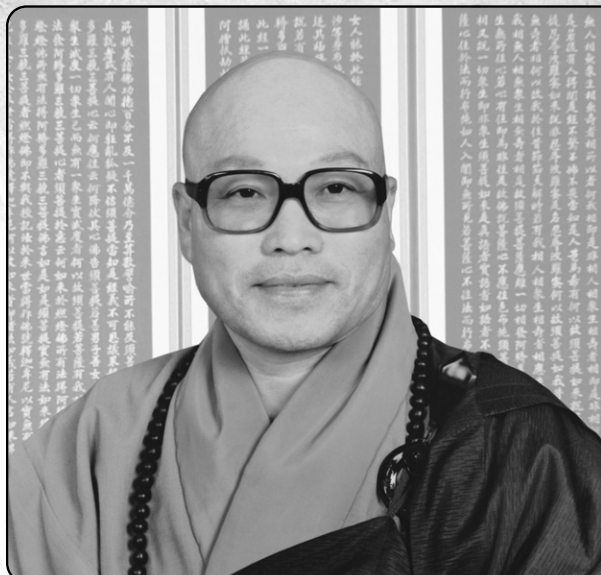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용인시노인복지관.

으로부터 복지관을 인수, 사업전반에 대한 평가·분석을 통해 운영시스템을 발전시킬 계획이다.

각현 스님은 “새로운 모습으로 지역어르신들에게 더욱 질 높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는 복지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031)898-1486

이어나 기자

동곡당 일타 대종사 열반 10주기 추모다례재



동곡당 일타 대종사의 열반 10주기 추모다례재를 아래와 같이 봉행하오니 문도스님들 및 큰스님과 인연 있으신 분들은 왕림하시어 자리를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곡당 일타 대종사 열반 10주기 추모다례재

- 일 시 _ 불기 2553(2009)년 12월 8일(음 10.22)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 장 소 _ 은혜사 법당
- 문 의 _ 종무소 (054) 335-3318 ~ 9



동곡당 일타 대종사 문도대표
대한불교조계종 10교구본사 은혜사 주지

포산 혜인 분향삼배
운곡 돈관